성 명

시의회의 '군산미군기지민항사용료 인상반대 촉구결의를 지지합니다.

미군기지민항사용료 인상철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11월 11일 시의회의 군산미군기지 민항사용료 인상반대 촉구결의를 지지합니다.

시민모임은 지난 10월 7일 군산미군기지측에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한 후 매주 금요일 비행장 정문앞 피켓시위와 1차 시민집회, 지난 11월 8일 자전거로 여는 평화의 날(2차 인상안 철회를 위한 시민집회)을 통해 군산시민과 함께 미국의 부당한 인상안 철회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민의 미군측의 부당한 인상안 철회 요구에 미군기지측은 지난 10월 20일 시민모임에 인상안을 해명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의 주된 내용은 1)미군의 해외주둔사례에 있어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 사용하는 땅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례가 없기에 한국에서 기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2)미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미군기지를 민간항공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미군측에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시민모임은 미군측의 주장, 즉 미군은 어느나라 땅이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국민이 그 땅을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비상식적이고 오만함을 규탄하였습니다.

인상안 철회의 절박성은 인상의 결과로 예견되는 군산시민의 경제적인 부담만은 아닙니다. 이는 한국국민이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시민모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이를 위한 한국국민들의 오랜기간의 인내와 노력속에서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측의 한국국민의 일방적인 희생과 강요는 한국국민과 미국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저해하는 장애임을 지적합니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함께하고자 하는 시의회의 결의 인상안의 즉각 철회와 군산기지사용에 관한 협정(MOA)개정의 요구를 지지하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1997. 11. 14.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제6차 비행장앞 금요시위에서

미군기지인상안철호를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문정현 오충일 문제곤